

역사를 말하는 멕시코 도서관!



마연정

파나마대학도서관 사서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murai81@hanmail.net

파나마에서 멕시코로!!

2008년 11월 21일부터 3주간 파나마에서 멕시코까지 육로로 여행을 다녀왔다. 대륙의 국경이란 것이 반도국에서 자란 나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국경을 넘는다는 기분이 이 육로 여행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파나마에서 멕시코까지는 버스로 꼬박 2박 3일 걸린다. 버스를 타고 대륙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젊고 튼튼한 두 다리를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여행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파나마를 출발, 코스타리카에서 2박 3일, 과테말라에서 5박 6일 여행 후 과테말라 띠칼(Tikal)에서 멕시코 팰렌케(Palenque)쪽의 국경을 통해 멕시코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이 때는 전기인지라 모든 곳이 말라있었다. 멕시코의 풍경은 영화랑 똑 같았다. 간간히 보이는 선인장과 바짝 마른 땅, 그 가운데의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을 넘기도 하고 평지를 달리기도 했다. 높은 산에 놓인 길을 따라 멕시코 남부 오하까(Oaxaca)에 도착하면서 나의 멕시코 여행은 시작되었다.

독특한 문화의 오하까(Oaxaca)

오하까는 멕시코 남부 한 주(州)의 이름이자 그 주에 있는 도시이다. 중미의 대부분이 인디오 유적과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하카는 또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특이한 곳이다. 오하카는 중남미의 마야, 아즈텍 문명과는 다른 사포텍(Zapotec)과 믹스텍(Mixtec)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으로, 스페인이 정복했을 당시의 유적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 오하카는 다양한 문화 만큼이나 독특한 생활문화가 있다. 지방색이 강한 음식과 메스칼(Mezcal) 술, 식민지 시대 건축양식 등은 멕시코의 다른 주(州)와는 또 다른 맛이 있어 여행객들을 즐겁게 한다.

사서로서 좋은 점은 어디를 가던 도서관을 관심의 대상으로 두고 독특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오하카 지방을 여행할 때 공공도서관(Biblioteca Pública del Estado)과 오하카 문화원(Casa de la Cultura Oaxaqueña)의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오하카 문화원(Casa de la Cultura Oaxaqueña)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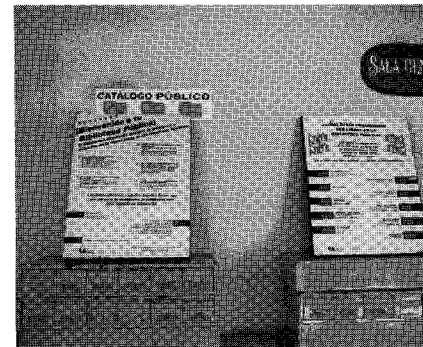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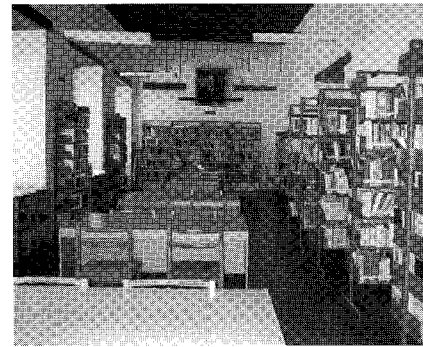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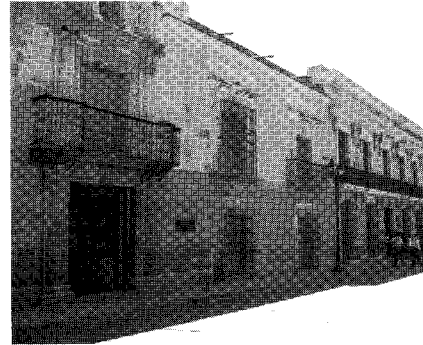
오하카 문화원 건물은 18세기에 지어져 수도원으로 쓰이던 건물을 전통학교로 사용하다가, 1971년부터 문화원으로 사용하였다. 오하카 문화원은 춤, 전시회, 연극과 음악, 미술 등 어린이 및 청소년, 장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활동이 기획되고 개최되는 장소로, 오하카 지방의 특색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 건물은 스페인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에 빠티오(Patio)라고 불리는 작은 정원이 있으며 그 둘레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형태이다. 1층 입구를 지나 복도를 따라 들어서면 작은 열람실이 있다. 열람실의 창을 통해서 정원을 볼 수 있어 도서관이 아니라 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정원과 복도를 활용하여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장식을 꾸며 두어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다.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지역민들의 문화중심지에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 오하카 문화원(Casa de la Cultura Oaxaqueña) 내 정원(Patio)
- 오하카 문화원 내 전시 및 독서 후 활동 공간이자 도서 열람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 오하카 문화원 내 일반자료실(Biblioteca Lic. Benito Juarez)

오하카 문화원 도서관은 오하카 지방에 대한 자료를 모은 특별자료실인 호세 안토니오 자료실(Biblioteca Lic. Jose Antonio Castañeda Gay)과 일반자료실인 베니토 후아레스자료실(Biblioteca Lic. Benito Juárez)¹⁾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의 자료는 카드목록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아동도서로 도서관을 꾸며놓았는데, 이 공간은 어린이 이용자들의 독서를 위한 곳이며, 독서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문화원에는 이 두 개의 자료실 외에 오하카 문화디지털 정보센터(Centro de Información Digitalizada de las Culturas Oaxaqueñas; CEDIC)라는 컴퓨터실이 있어 오하카와 관련된 신문, 잡지 기사 및 디지털화 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용자 교육도 한다고 하였다.



오하카 공공도서관(La Biblioteca Pública Central del Estado de Oaxaca)

오하카 문화원을 나와서 역사 관광지구(Centro Historico) 안에 위치한 오하카 공공도서관(La Biblioteca Publica Central del Estado de Oaxaca)을 찾아갔다. 역사관광지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건물들은 몇 세기 이전의 유적이지만 보존이 잘 되어 있어 현재도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마르가리타 마사 데 후아레스(Margarita Maza de Juarez)²⁾라는 별칭이 있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17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풍의 건물로 이전에는 아이리쉬 수녀회가, 그 뒤에는 상인, 거주민들, 상류사회 여성들의 사교장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1985년 오하카 공공도서관으로 일반대중에게 문을 열었다.

■□□ 17세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오하카 공공도서관 전경.

□□□ 오하카 공공도서관 일반도서 자료실 내부 모습.

□□■ 오하카 공공도서관의 카드목록함과 검색 안내 표지판. 대부분의 도서관이 카드목록을 사용하고 있다.

- 1) 파나마도 그렇지만 멕시코도 도서관 혹은 도서관의 각 자료실에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다.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z) 자료실은 1858년부터 1872년까지 멕시코 대통령을 지냈던 베니토 후아레스의 이름을 딴 자료실로, 그는 오하카 지역의 산 파블로 겔라따오(San Pablo Guelatao) 출신이다. 베니토 후아레스는 멕시코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통령으로 그의 이름은 멕시코 국제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iudad de Mexico Benito Juarez)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 위에 언급한 베니토 후아레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름

오하카 공공도서관은 모든 주제분야에 걸친 자료실과 어린이실, 오하카의 사적 수집물, 필사본, 도서, 미출판 문서, 연감, 전기, 역사 사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오하카실(Sala de Oaxaca)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오하카에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비롯하여 많은 도서관이 있었지만 2박3일의 짧은 일정을 계획했던 지라 다 둘러보지는 못했다. 오하카에서 베라크루즈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했다. 멕시코시티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마리아치(mariachi)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과달라하라(Guadalajara)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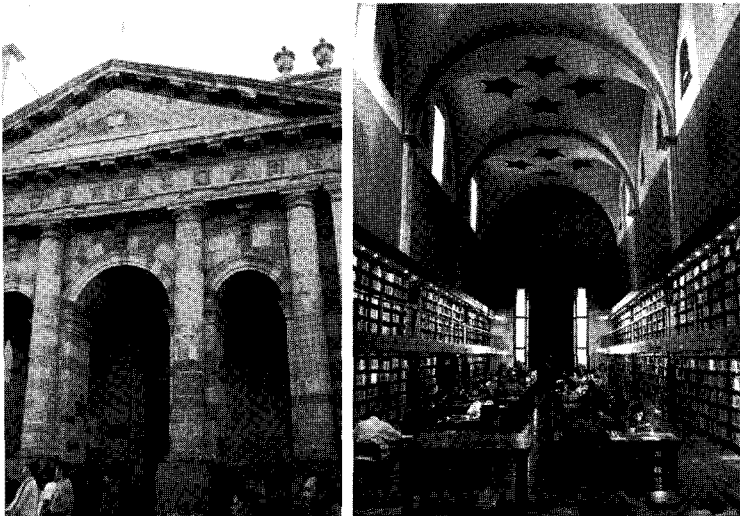
**과달라하라(Guadalajara)와 과달라하라 대학(Universidad de Guadalajara) 도서관,
옥타비아 파스 이베로아메리카나 도서관(Biblioteca Iberoamericana "Octavio Paz")**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할리스코(Jalisco)주(州)의 주도(州都)이며 멕시코의 서부 태평양쪽에 위치해 있다. 또한 멕시코에서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다. 과달라하라는 1531년 스페인 탐험가 크리스토팔 데 오냐떼(Cristóbal de Oñate)에 의해 발견된 이후 스페인인들에 의해 도시가 세워졌다. 이 지명은 오냐떼가 태어난 스페인 지방의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과달라하라는 높은 고도의 영향과 북서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계절을 볼 수 있지만 연중 기온은 온화하다. 5월에서 7월 여름에는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지만 기후는 매우 건조하다.

1791년 10월 12일에 세워진 과달라하라 대학은 중앙 캠퍼스와 행정 사무소는 과달라하라에 있으며 나머지는 분산되어 있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이며, 북미권에서는 4번째로 오래된 대학이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4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라고 한다.

과달라하라 시청 근처의 관광객 안내소에 물어 도서관을 찾아갔다. 관광지도의 위치에 나온 도서관이 맞는지, 건물 외관을 보면 도서관의 느낌이 나지 않아 건물 앞에서 도서관 건물이 맞는지를 한참동안 고민했다.

또 이용객들이 어찌나 많은지 한산하기만한 도서관을 예상했던 터라 바로 앞에 도서관을 두고 도서관을 찾는다고 주변을 헤맸다. 도서관 바로 앞에 지하철 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 □ 과달라하라 대학도서관 옥타비아 파스 이베로아메리카나 도서관(Biblioteca Iberoamericana "Octavio Paz") 건물 전경

■ ■ 도서관 내부 모습. 건물내부의 벽화는 1930년 알폰소 미첼(Alfonso Michel)과 헤수스 게레로 갈반(Jesús Guerrero Galván)에 의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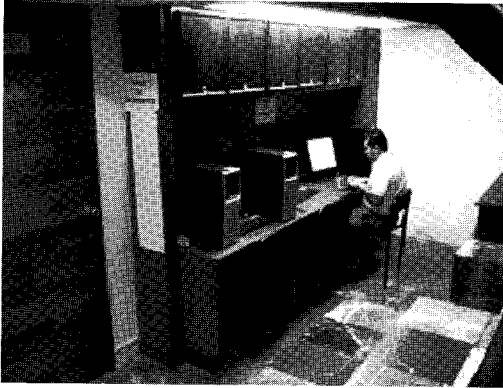
내가 찾아가 과달라하라 대학도서관의 정식 명칭은 옥타비아 파스 이베로아메리카나 도서관(Biblioteca Iberoamericana "Octavio Paz")이다. 옥타비아 파스(Octavio Paz)라는 별칭은 199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자 수필가인 옥타비아 파스를 기리기 위해 붙였다고 한다.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na)는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를 뜻하는 말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991년 6월 18-19일에 있었던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와 주지사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과달라하라 선언에서 합의된 것 중에 라틴 아메리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곳의 도서관은 관련된 도서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옥타비아 파스 이베로아메리카나 도서관은 그 최초의 도서관으로, 연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이러한 정신과 그들의 문화적 주체성의 지적인 결과를 과달라하라 대학이 보여주는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도서관 건물의 전신은 성당이었다. 산토 토마스 데 아끼노 전(前) 성당은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같은 이름의 학교와 함께 신(新)스페인의 서부에서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주요 기지였다. 1591년에 건축복합체로 건설되기 시작했으나, 1767년 스페인왕 카를로스 4세가 보낸 예수회가 추방당하면서, 새로운 갈라시아 정부의 힘에 의해 건축은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과달라하라시(市)에서 대학의 개교에 관심이 있었으며, 프레이 안토니오 알칼데 주교(Fray Antonio Alcalde)를 포함한 중요한 인사들의 압력 아래, 1792년에 그 생각이 구체화되었다. 이 결과로 과달라하라 국립대학과 왕립문예원이 생겼으며, 산토 토마스 데 아끼노 성당과 학교를 주요 본부로 선정하였다. 1937년 주(州) 정부는, 에베라르도 토페테(Everardo Topete)에 의해 산토 토마스 학교와 그 부속 성당 건물을 한 기업에 팔았다. 그 뒤 1948년부터 1985년까지 국립전신국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건물 왼쪽 첫 번째 문을 닫은 후, 건축가 곤살로 비야 차베스(Gonzalo Villa Chávez)의 지휘 아래 건축가, 역사가, 예술복원가 등으로 각 전문 분야 협력 팀을 구성, 복원 작업을 하였다.

이 도서관은 과달라하라 대학 개교 200주년과 500년 전 두 세계의 만남을 기념해 1991년에 개관했다. 두 세계의 만남이란 스페인사람들이 멕시코에 들어왔을 무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과달라하라 대학은 할리스코 주(州) 여러 곳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옥타비아 파스 이베로아메리카나 도서관은 전 주제분야를 망라하기보다는 대학 캠퍼스의 성격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서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다고 하며, 도서관의 장서는 대략 4만권 정도이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등의 사회과학분야와 건축, 조각, 회화, 사진, 음악 등의 예술분야, 소설, 시, 에세이 등을 포함한 문학분야가 있다. 특히 카리브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역사분야를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개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자료뿐만 아니라, 컴퓨터실, 복사실, 우체국 등의 시설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서의 관외 대출은 불가능하며 관내열람만 가능하다.

대학 도서관이지만 두 가지 특징이 인상 깊어 적어보고자 한다.



■ 시각장애인용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모습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점자도서

도서관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좌측 서가 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전용단말기가 놓여 있다. 캠퍼스 도서관이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가가 비치되어 있는 것과 시각장애인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등 장애인들에게 열린 환경을 제공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의 배려이다. 어린이실(Area Infantil)은 6세부터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가구들을 사용해 꾸며져 있다. 또한 학교에서 사전예약을 할 경우 최대 5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연동화와 도서관 안내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일찍부터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 등은 대학도서관이라기보다는 공공도서관에 가깝게 느껴졌다. 이 도서관의 모습을 보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대학도서관의 모습이 한국의 대학도서관에도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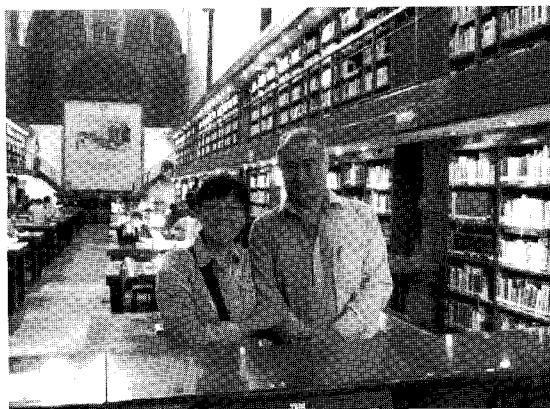


■ 도서관 내 어린이도서로 꾸며진 공간(Area Infantil)

하루 이용자만 해도 5천명에 달한다는 옥타비아 파스 이베로아메리카나 도서관!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만 큼이나 과달라하라 시의 역사와 함께 그 세월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도서관이다.

아쉬움이 남기에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행

멕시코 여행을 하기 전에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웠더라면 멕시코 국립대학(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의 도서관도 보고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과달라하라 대학도서관에 갔을 때 일정이 된다면 꼭 멕시코 국립대학 도서관을 보라고 추천을 해줬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한정된 시간에 넓은 땅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테마가 도서관이 아니었기에 많은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다. 아쉬움이 남는 면이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찾아간 동양인 사서에게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없이 다가와 도서관 안내를 해주신 도서관인들이 있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지 싶다.



■ 도서관 안내를 해주셨던 책임사서 하비에르 까데나(Javier Cadena)씨와 함께

[참고자료]

오하카 문화원 <<http://www.casadeculturaoaxaquena.com>>

오하카 공공도서관 <<http://biblioteca-publica-de-oaxaca.blogspot.com>>

과달라하라 대학 홈페이지 <<http://www.udg.mx>>

과달라하라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dg.biblio.udg.mx>>, <<http://rebiudg.udg.mx>>

옥타비아 파스 이베로아메리카나 도서관 <<http://servicios.cencar.udg.mx/iberoamericana>> 